

A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Hyun-Joo Kim*, Hwie-Seo Park**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s betwee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Research problems fo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stable over time? Second, what is the longitudinal impact of school adjustmen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ver time? Third, what is the longitudinal impa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school adjustment over tim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search problems by apply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regressive model of school adjust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uture time point and is stable over time. Second, the autoregressive mod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uture time point and is stable over time. Third, cross-lagged effect from school adjustment to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 a later time, and is stable over time. Fourth, cross-lagged effect from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o school adjust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tim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re was no change with time. This study is meaningful to provid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three - year term data over time.

▶ Keyword: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chool Adjustment, Longitudinal Stud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1. Introduction

여성가족부(2019)의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306,995가구로 추정되며[1]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218개 운영되고 있다[2]. 그러나 '다문화'의 용어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다문화'가 차별과 혐오의 용어로 인식되고 [3] 다문화수용성이 낮아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본격적인 청소년층 진입이 시작되고 있으나 언어문제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과 따돌림 등으로 차별당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4].

특히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들은 교우관계와 학습활동의 어려움으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규칙과 학습활동에 취약하여[5] 학교생활에서 낮은 자존감 및 부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6].

청소년들의 경우 이주배경집단들이 비교적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 사회부적응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7]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학교 적응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생각의 틀과 인지능력이 결합하여 발달하는 시기이므로[8]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모

• First Author : Hyun-Joo Kim, Corresponding Author : Hwie-Seo Park

*Hyun-Joo Kim (khj.8403119@daum.net), Korean Cultural Welfare Institute

**Hwie-Seo Park (hspark@chosun.ac.kr), Dept. of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9. 07. 01, Revised: 2019. 07. 25, Accepted: 2019. 07. 25.

든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회귀경로에 의한 횡단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상호관계를 살필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종단자료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은 안정적인가?
 연구문제2.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적응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다문화수용성은 타 문화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며 다양한 배경(인종, 문화 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9], 원주민의 외국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태도로 우리 문화만이 최고라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좋은 외국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사고방식이며 다양한 방식(취업, 결혼 등)으로 우리사회에 편입한 이주민들과의 공존을 인정하는 태도이다.[10]

다문화수용성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주 구성원인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들로는 자아존중감[11][12][13][14], 학교적응[7][9][15][16][17], 봉사활동참여[15] 등이 있으며 이수경과 전선미의 연구[13]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를 향상하면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수준 및 봉사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에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스스로 계획한 봉사 참여일수록 영향력이 컸다.

2. School Adjustment

학교적응은 성인으로의 발달에 필요한 사회규칙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힘을 배우는 과정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이다[18].

학교는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동안 관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학교 내에서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교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신을 학교환경에 변화시키며 학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9] 학교규칙, 학습활동,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등의 학교상황영역에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19].

학교적응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20][21], 부모애착[22], 청소년활동[15][19][23][24][25] 공동체의식[26][20] 도덕성 및 사회성[10], 삶의 만족[27][28] 등이 있다.

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정도가 높고 안정적인일수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반가정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학교적응 차이를 확인한 연구[28]에서는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쳤으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관계만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적응에 도덕성과 사회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10]에서는 도덕성과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성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학교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6]에서는 학교규칙과 학습활동적응이 잘 이루어질수록, 긍정적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일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았다.

3. Multicultural Acceptance & School Adjustment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7][9][15][16][17], 다문화수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일방적 회귀관계가 아닌 상호작용 회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상호작용관계와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Study Design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종단적 변화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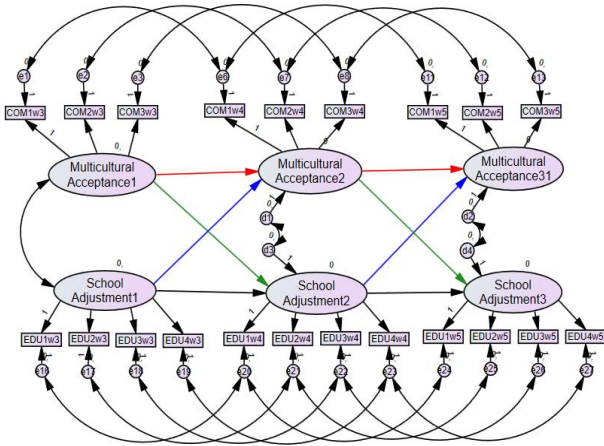


Fig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1

2. Measuring the Variables

첫째,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양계민과 정진경[29]의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한 KCYPS자료 3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변수 변환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높다.

둘째, 학교적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민병수[30]의 척도를 수정하고 보완한 KCYPS자료[31] 중 학습활동 (1문항-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학교규칙 (1문항-학급당번 등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우관계 (1문항-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1문항-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의 4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변수 변환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다.

3.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형과 교차지연모형이 결합한 것으로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시켜 변인 간 교차지연효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표본으로 선택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동일한 시간 간격 하에 3회 이상 실시하고 $[t] / [t+1]$ 시점의 값에 의해 $[t+1] / [t+2]$ 시점의 값이 설명되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32][33].

중단분석을 위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측정변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해 측정 동일성검증을 실시하고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검증,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검증, 오차공분산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동일성검증을 차례대로 검증하여 최상의 모형을 선택한다[34]. 즉, 측정 동일성검증은 잠재변수의 각각의 측정변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a_1, a_2, a_3 / b_1, b_2$)을 한 검증으로 각각의 시점별 측정값이 시간이 경과해도 동일한 개념인지를 측정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 동일성 검증이 된 모형은 시간이 경과해도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해석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경로 동일성검증은 잠재변수들의 자기회귀계수와 잠재변수들 간 교차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A, B, C, D)을 한 검증으로 $[t] / [t+1]$ 시점의 잠재변수가 $[t+1] / [t+2]$ 시점의

잠재변수에 주는 효과의 동일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오차공분산 동일성검증은 내생잠재변수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E)을 한 검증으로 동일시점에서 잠재변수들 간 관련성에 대해 시간의 경과 시 측정의 동일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두 변수를 선정하고 검증순서에 따라 측정 동일성검증 → 경로 동일성검증 → 오차공분산 동일성검증을 실시하였다. 1모형부터 8모형까지 8단계의 모형들을 순차적 비교 검증하여 최상의 모형을 채택한 후 $[t] / [t+1]$ 시점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값이 $[t+1] / [t+2]$ 시점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값에 주는 상호영향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k_i[t+1] = h_0[t+1] + h_1 k_i[t] + h_2 r_i[t] + q_i[t+1] \dots \text{식1}$$

$$r_i[t+1] = w_0[t+1] + w_1 r_i[t] + w_2 k_i[t] + e_i[t+1] \dots \text{식2}$$

$k_i[t+1]$ 는 개인 i 의 $[t+1]$ 시점에서의 k 값이며 $r_i[t+1]$ 는 개인 i 의 $[t+1]$ 시점에서의 r 값을 나타낸다. h_0 와 w_0 는 각각 $[t+1]$ 시점에서의 절편값을 나타낸다. $k_i[t]$ 와 $r_i[t]$ 는 $[t]$ 시점에서의 측정값을 나타낸다. $q_i[t+1]$ 와 $e_i[t+1]$ 는 개개인 i 의 $[t+1]$ 시점에서의 잔여값을 나타낸다. h_0 와 w_0 는 한 요인의 $[t]$ 시점의 값으로부터 다른 요인의 $[t+1]$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계수이다.

IV. Empirical Analysis

1. Sampling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상호작용관계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한 KCYPS(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자료의 2012년 3차년도(중3), 2013년 4차년도(고1), 2014년 5차년도(고2)의 3개년 패널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였다. 결측치는 완전제거(List Deletion)방법을 사용하여 두 변수와 관련된 질문에 모두 응답한 19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Technical Statistics

각 시점의 변수들의 변화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은 모두 왜도 |2| 미만, 첨도 |4| 미만[35]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다문화수용성의 평균은 중3(M=3.08), 고1(M=3.23), 고2(M=3.2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의 평균은 중3(M=3.05), 고1(M=3.07), 고2(M=3.07)로 나타나 중3에서 고1까지 증가하다가 고2시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상관관계는 학교적응 2차와 학교적응 3차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r=.488$ $p<.01$), 학교적응 3차와 다문화수용성 1차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다($r=.188$, $p<.01$).

각 시점별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3.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nalysis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중단적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의 검증→경로 동일성의 검증→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검증을 통한 8개의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X^2 검증방법과 적합도 검증방법 가운데 적합도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X^2 검증이 표본크기에 민감해 영가설이 쉽게 기각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합도 검증을 위해 TLI, CFI, RMSEA지수를 비교하였다. TLI 지수의 적합도 $\geq .90$, CFI 지수의 적합도 $\geq .90$ 이상, RMSEA 지수의 적합도는 $\leq .08$ 일 때 모델의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ΔCFI 가 .01이하인 경우 모형 간 차이가 없다[36].

적합도 비교를 위한 경쟁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비교검증은 <표 2>에 제시하였다.

- 모형 1. 자기회귀교차지연 기본모형(d1~d2, d3~d4)
- 모형 2. 학교적응의 측정 동일성 제약 검증모형(a1, a2, a3)
- 모형 3. 다문화수용성의 측정 동일성 제약 검증모형(b1, b2)
- 모형 4.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모형(A)
- 모형 5. 다문화수용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모형(B)
- 모형 6. 학교적응에서 다문화수용성으로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모형(C)
- 모형 7. 다문화수용성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모형(D)
- 모형 8.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모형(E)

Table1. Technical Statistics

n=1939	SA1	SA2	SA3	MA1	MA2	MA3
SA1	1					
SA2	.404	1				
SA3	.399	.488	1			
MA1	.299	.207	.188	1		
MA2	.210	.342	.202	.370	1	
MA3	.195	.247	.349	.355	.476	1
mean	3.05	3.07	3.07	3.08	3.23	3.28
standard deviation	.463	.436	.428	.604	.546	.538
Skewness	-.01	-.03	-.07	-.32	-.05	-.09
	9	6	2	2	5	3
kurtosis	.177	.518	.925	.699	-.11	-.25
				3	8	

remark1. ** P<.01

remark2. 1=First Time, 2=Second Tme, 3=Third Time

SA=Scool Adjustment, MA=Multicultural Acceptanc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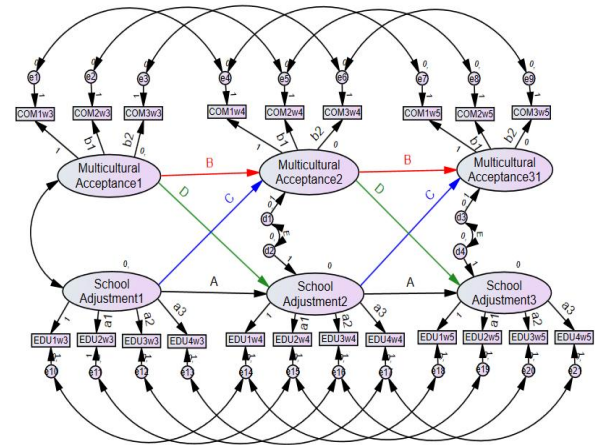


Fig. 2.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8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합도 비교검증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들 모두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ΔCFI 와 $\Delta RMSEA$ 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모형과 2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Delta CFI=-.001$, $\Delta RMSEA=-.001$ 로 나타나 2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1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학교적응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

둘째, 2모형과 3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Delta CFI=.000$, $\Delta RMSEA=.000$ 로 나타나 3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학교적응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 2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다문화수용성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

Table 2. Result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alysis

n = 1940	χ^2 (p)	df	TLI	CFI	ΔCFI	RMSEA
모형1	777.997 (.000)	164	.948	.963	.000	.044
모형2	791.056 (.000)	170	.949	.962	-.001	.043
모형3	800.574 (.000)	174	.950	.962	.000	.043
모형4	808.022 (.000)	175	.949	.962	.000	.043
모형5	823.198 (.000)	176	.949	.961	-.001	.044
모형6	827.482 (.000)	177	.949	.961	.000	.044
모형7	834.989 (.000)	178	.948	.960	-.001	.044
모형8	836.039 (.000)	179	.949	.960	.000	.044

셋째, 3모형과 4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Delta CFI=.000$, $\Delta RMSEA=.000$ 으로 나타나 4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다문화수용성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 3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잠재변수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넷째, 4모형과 5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Delta CFI=-.001$, $\Delta RMSEA=.001$ 로 나타나 5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4모형에 비

해 차이가 없으므로 잠재변수 다문화수용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다섯째, 5모형과 6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Delta CFI=.000$, $\Delta RMSEA=.000$ 으로 나타나 6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5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학교적응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여섯째, 6모형과 7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Delta CFI=-.001$, $\Delta RMSEA=.000$ 으로 나타나 7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6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학교적응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일곱째, 7모형과 8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Delta CFI=.000$, $\Delta RMSEA=.000$ 으로 나타나 8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7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오차 공분산 간 동일성은 성립한다.

따라서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측정동일성, 각각의 잠재변수에 대한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오차 공분산 간 동일성 검증을 거친 8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최종모형인 모형8의 모수추정치 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모형8의 모수추정치의 경로는 <표 3>,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의 자기회귀효과는 $[t]$ 시점의 1차 학교적응이 $[t+1]$ 시점의 2차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B=.667$, $P<.001$, $\beta=.694$), $[t+1]$ 시점의 2차 학교적응이 $[t+2]$ 시점의 3차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B=.667$, $P<.001$, $\beta=.689$)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자기회귀효과는 $[t]$ 시점의 1차 다문화수용성이 $[t+1]$ 시점의 2차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B=.354$, $P<.001$, $\beta=.383$), $[t+1]$ 시점의 2차 다문화수용성이 $[t+2]$ 시점의 3차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B=.354$, $P<.001$, $\beta=.373$)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학교적응에서 다문화수용성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t]$ 시점의 1차 학교적응이 $[t+1]$ 시점의 2차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B=.195$, $P<.001$, $\beta=.158$), $[t+1]$ 시점의 2차 학교적응이 $[t+2]$ 시점의 3차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B=.195$, $P<.001$, $\beta=.160$)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다문화수용성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t]$ 시점의 1차 다문화수용성이 $[t+1]$ 시점의 2차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t+1]$ 시점의 2차 다문화수용성이 $[t+2]$ 시점의 3차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3. Parameter Estim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	S.E.	C.R	P	β
SA1→SA2	0.667	0.026	25.56	***	0.694
MA1→SA2	-0.01	0.016	-0.42	0.68	-0.01
SA1→MA2	0.195	0.027	7.087	***	0.158
MA1→MA2	0.354	0.018	20.07	***	0.383
SA2→SA3	0.667	0.026	25.56	***	0.689
MA2→MA3	0.354	0.018	20.07	***	0.373
SA2→MA3	0.195	0.027	7.087	***	0.16
MA2→SA3	-0.01	0.016	-0.42	0.68	-0.01

remark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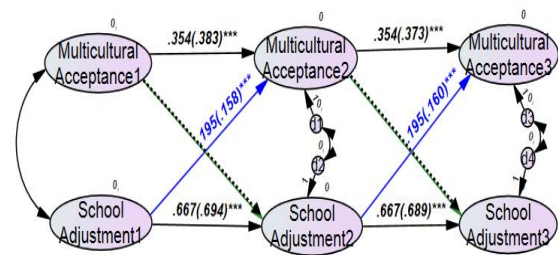


Fig. 3. Path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remark1. *** $P<.001$
remark2.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V. Conclusion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선택된 문항에 모두 응답한 1939명을 대상으로 SPSS 23.0과 AMOS 23.0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로 일방적인 인과관계 경로를 설정하고 분석하였기에 원인이 되는 변수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 유지와 상호작용관계를 살피고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원인이 되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LM)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종단적 상호관계 확인과정으로 측정 동일성의 검증→경로 동일성의 검증→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검증을 위한 8개의 경쟁모형을 비교하였으며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의 자기회귀효과는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 해의 학교적응이

다음 해의 학교적응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적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이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적응의 중단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9]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자기회귀효과는 이전시점의 다문화수용성이 이후시점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 해의 다문화수용성이 다음 해의 다문화수용성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수용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이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다문화수용성의 중단분석을 실시한 연구[9]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증가 후 감소하는 형태의 비선형변화를 나타냈다.

셋째, 학교적응에서 다문화수용성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시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 해의 학교적응이 다음 해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학교적응의 교차지연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넷째, 다문화수용성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이전시점의 다문화수용성이 이후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일반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9]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이 다문화수용성에 시간적으로 우선되는 변수이며 학교적응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3년간의 중단자료를 사용하여 단일 시점의 영향력만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점별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이론적·실천적 시사점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때 다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들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므로 인해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문화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적응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동아리 활동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 맺기나 또래 언어방 등을 통해 자신의 관심 있는 언어를 배우고 소통한다면

모든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하나의 변수로 보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교적응의 하위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하위변수 각각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각각의 하위변수들로 분리하여 일반 청소년과 이주배경문화를 가진 다문화 청소년 간 비교검증을 실시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호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Naver News(2019.05.02.)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730&call_from=naver_news
- [2]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2019)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 [3] Women News(2019.06.1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538>
- [4] Ch161(2019.06.26.)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74898
- [5] Choi, Sung Bo. "The Effect of School Adapt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2011.
- [6] Cheon, Ho Seong · Park, Gye Suk. "A Study on the School Lif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Vol. 2, NO. 2, pp.415-442, 2012.
- [7] Sul, Jin Bae · Kim, So-h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School Adjustment by Multicultural Background: Testing Mediation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8, No. 1, pp.155-180, 2017.
- [8] Piaget, J.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Y: Free Press. 1965.
- [9] Sul, Jin Bae.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Migrant and Domestic Backgrounds in South Korea: Towards Conflict Resolu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9, No. 1, pp.307-331, 2018.
- [10] Kim, Ok Ran. "The Relationship among Morality, Multicultural Acceptance, Sociality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Kyung Nam University, 2017.
- [11] Suh, Min Sook.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Community Consciousnes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ersity, 2019.
- [12] Yang, Young Mi · Kim, Jin Seok.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 Esteem, Sense of Community, and

- Multicultural Receptivity”,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7, No. 4, 309-328, 2015.
- [13] Lee, Soo Kyoung · Jun, Sun Mi. “Factors that have Impacts on the Multi-Culture Accept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Self-Esteem, Community Closeness, Peer Attach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4, 103-121, 2014.
- [14] Park, Young Ju · Lee, Ju Eun. “Factors that have impacts on the multi-culture acceptance of juveniles”. *School social welfare*, 24, 285-310, 2013.
- [15] Lee, Kyoung Hye · Kim, Hye In. "A Study of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Participation on Sense of Community, School Adjustmen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5, No. 9, 179-202, 2018.
- [16] Park, Mee hye.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Life Adaptation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With a Focus on Parameters of Social Outlook”,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Vol.15, No.4, 21-30, 2015.
- [17] Oh, Kyung Wha.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ir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Adaption to Korean School Lif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9, No. 9, 83-97, 2011.
- [18] Newman, B. M., & Newman, P. R.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5th ed). Chicago: Dorsey Press, 1991.
- [19] Park, Jin Hwa. "Impact of Youth Participation in Experiential Activity on School Adaptation -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Korea Youth Activity Research*, Vol. 3, No. 1, 29-50, 2016.
- [20] Jung, Soo Bin.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among Physical Competence, Self-Esteem,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16.
- [21] Lee, Eun Mi.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encouragement,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justment, Graduate school of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2013.
- [22] Hong, Jin Hui.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on School Adaptation to School Life :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ngence",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2013.
- [23] Lee, Eung Taek · Kwak, Hyoun · Lea, Eun Kyoung. “Longitudinal Study of satisfaction of Youth Activity and Levels of Youth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2, 345-370, 2016.
- [24] Jeon, Myong Sun · Kim, Tea Kyun.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on adaption in school life, study habit and academic achievement”. *Youth Culture Forum*, 38, 71-90, 2014.
- [25] Oh, Young Hoon · Lim, Han Na. "A Study on Adaptation of School Children to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Youth Training Center". *Multiculturalism and Peace*, Vol. 8, No. 1, 143-172, 2014.
- [26] Koo, Ji Yoon · Kim, Yu Na.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and school adjustment on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8, 287-309, 2016.
- [27] Kim, Hye Su.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of School Life". Seo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28] Choi, Sung Bo · Lee, Hyun Chul · Kim, Kyung Sik. "The Effect of Adaptation of School Life on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29] Yang, Gye Min, Jung, Jin Kyung. "A Study on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th for Social Integration".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8.
- [30] Min, Byung Soo. "The effect of school adaptation and self concept on academic performanc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1.
- [3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1st ~ 7th User's Guide*. 2016.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1st-7th Research Codebook*. 201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1st Grade in Middle School 1st ~ 7th Panel Survey Data*. 2016.
- [32] Hong, Se Hee · Park, Min Sun · Kim, Won Jung.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Vol. 21, No. 1, 129-143. 2007.
- [33] Kenneth, S., Wood, M. D., Wood, P. K., & Raskin, G.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alcohol use: A latent variable cross-lagged pane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05, No. 4, 561-574, 1996.
- [34] Kim, Ju Hwan · Kim, Min Gyu · Hong, Se Hee. "Writing articles using structural equations". Seoul: Combs Books, 2009.
- [35] Hong, S., Malik, M. L., & Lee, M. K.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Vol. 63, No. 4, 636-654, 2003.
- [36] Cheung, G. W., & Rensvold, R. B.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9, 233-255, 2002.

Authors



Hyun-Joo Kim got Ph.D at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19. She worked in a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Youth welfare, Women

welfare Family welfare, Counselling, Community Social welfare etc.



Hwie-Seo Park got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3. Hwieso Park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survey method etc.